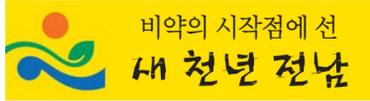


‘블루 투어’의 중심 여수 경도 세계적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



〈목 차〉

- 제 1부 성장 기반을 닦다
- 제 2부 곳곳에 활력 샘솟다
- 제 3부 미래 도약 나신다
- 제 4부 지속성장 동력 갖추다

〈11〉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이르면 2023년 말 전남에 세계적 해양 복합 관광 단지가 들어선다. 여수 경도에 조성 중인 해양관광 단지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국내 주요 관광지 자리 잡은 여수가 11년 만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민선 6기 첫 논의가 시작된 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4월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 부지 대금을 완납하고, 6월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공일만 남겨 뒀다.

해양 복합 관광단지로 재탄생할 여수 경도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으로의 세계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 단지가 더 나아가 다도해 2165개의 섬, 연륙·연도, 갯벌, 청정 공기 등 전남이 가진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토대로 한 민선 7기 전남도의 새 천년 비전의 한 프로젝트인 ‘블루투어(BLUE TOUR)’의 모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2월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신설한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맡는다. 미래에셋그룹은 앞서 골프장을 포함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2.15km(65만평)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3433억원에 매입했다.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섬 전체 면적 2.34km의 92%에 해당하며,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의 300배 크기다.

경도는 2014년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주목받았다. 여수 국동항에서 뱃길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데다 경관이 수려해 해양관광단지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에 관심이 쏠려 있던 터라 경도에 대한 투자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이 지난 2017년 1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제

2.15km² 축구장 면적의 300배 크기
골프장·호텔·콘도·워터파크 시설
경도~국동항 연륙교도 개통
1조5천억 투입 ... 2023년 말 완공
세계인 주목 받는 관광 전남의 거점

화됐다. 이후 미래에셋그룹은 세계적 설계사인 네덜란드 ‘UN Studio’를 선정해 지난 2018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으며,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경도 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은 지난해 5월 관할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승인을 받았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경도와 국동항을 잇는 연륙교 개통(2024년) 전인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경도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계획상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기존 골프장에 더해 다수의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업시설을 갖춘 모습이다. 경도 북쪽 선착장 주변에는 3531억원을 들여 1020개 객실을 갖춘 타워형 레지던스가 들어 서고, 그 인근의 경호초등학교 북쪽에는 부지 규모 3만6690m²의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호텔·콘도·워터파크 등을 갖춘 선라이즈 워터프론트(친수시설공간)와 선라이즈베이 콘도도 들어선다. 선라이즈 워터프론트는 부지 규모 9만4176m²에 300개 객실을 갖춘 호텔, 200개 객실을 갖춘 콘도도 포함된다. 선라이즈베이 콘도는 부지 2만 9000m² 규모로 객실 100개가 딸린다.

골프장 인근에는 객실 200개 규모의 히미티지 럭셔리 호텔(부지 3만2860m²), 객실 45개의 빌라형 콘도도 건립된다. 관광단지 명물로 기대받던 경도와 돌산읍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은 시행 여부가 유동적이다. 경도 내 경호초등학교는 인근으로 옮겨 1만5000m² 부지에 사업비 86억원을 들여 신축한 후 교육당국에 기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착공식 이후 현재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레지던스 건축 공사 등 본격적인 관광시설 건설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경도와 여수 국동항을 잇는 연륙교 개설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로 총사업비 1178억원(국비 40%·지방비 40%·미래에셋 20%) 규모다. 올 연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연륙교가 완공되면 선박을 이용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경도를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은 지난 6월 경도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여수 경도를 최고의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해 문화를 간직한 해양관광단



2023년 말 개장 예정인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전남도 제공〉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착공식

지난 6월 11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갑섭 광양시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희재·추철현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여수를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할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개장하면 여수지역에 매년 외국인 관광

객 82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2조2000억원, 고용 창출 1만4000명 등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2023년 경도 관광단지 개장 이후 2029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이 경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 및 지역 인재 고용 등 지역 사회 배려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업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한데다, 경도와 여수 내륙을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동부권에 잇단 호재 ... 여수·순천, 경도와 더불어 글로벌 관광지 도약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할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2023년 4~10월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 회의인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전남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 변방 해양 도시 여수가 2012년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국내외의 주목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전남 최대 해양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던 터라 국제 행사를 앞둔 전남 동부권의 기대감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당사자인 미래에셋그룹 역시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골프장을 포함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2.15km(65만평)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3433억원에 매입한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6월 관광단지 착공식을 시작으로 기반공사에 나섰다.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섬 전체 면적 2.34km²의 92%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에는 레지던스(객실 1202실), 호텔 2개(각각 300·200실), 콘도 3개(각각 200·100·45실)가 들어선다. 기존 골프장에 더해 워터파크, 인공해변 등 물놀이 시설과 상업시설도 계획됐다. 다만 호텔, 레지던스, 콘도 등 숙박시설 객실만 합치면 2000실 넘는 숙박시설의 수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수 나아가 전남 동부권에 각종 국제 행사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경도 관광단지의 성공,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에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보유한 관광 매력도가 여전하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 여수엑스포해양공원,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순천만 국가정원 전경.

〈전남도 제공〉

여수 오동도, 돌산공원, 낙안읍성 등 전국적 명성을 가진 관광자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문체부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는 625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린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다. 이곳은 1인당 최고 8000원의 입장료를 받지만 지난 1년간 모두 617만9697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

다. 다음으로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는 지난 1년간 362만7470명이 방문했다. 여수 오동도 290만8000여명, 정매실농원 249만8000여명, 돌산공원 166만 6000명 등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잠시 주춤하지만 바이러스 종식 후 내년 수준의 관광객 유치는 무난할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2023년 순천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4~10월까지 개최된다. 국내외에서 8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찾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남도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국내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도 고무적이다. COP28 국내 유치가 확정 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 회의로 평가받는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는 198개 회원국에서 2만여명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및 개최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도 높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본부장은 “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년 개최 확정 이후 제28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COP28 유치 성공과 대회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전남이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